

가정 예배 모범

- 2021_12_12_장기중앙교회

매일성경 12월호 가정예배_성서유니온 선교회 홈페이지 자료실

▶ 함께 함께 기도 (예배를 시작하며 기도문을 읽습니다)

=> 조금도 손해 보지 않으려고 서로 짓밟고 다투는 세상 가운데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며 용서하는 모습을 나타내도록 도와주세요.

▶ 함께 찬양 (가족 모두 잘 아는 다른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

=>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송가 260장)

▶ 함께 읽기 (주일 본문을 가족들이 돌아가며 읽습니다)

=> 사사기 20장 29~ 48절

▶ 함께 묵상 (질문을 따라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1) 1,2차 전투에서 이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3차 전투에서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베냐민 사람들을 치셨습니까?(29-35절)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연합군의 전투에서 두 차례 이겼습니다. 패배를 맛본 연합군은 하나님께 간절히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베냐민 자손과 싸울 것을 물었습니다. 이기게 하신다는 약속을 듣고 신중하게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는 연합군에게 완전히 패하여 싸울 줄 아는 이만오천백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성경은 이 일에 대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매”라고 말씀합니다. 연합군을 사용했지만, 이기적이고 욕심으로 가득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했습니다. 단지 베냐민 지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형제 지파와 서로 싸우고 다투고, 전쟁을 일으켜 서로 죽이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 비극적인 현실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이기적인 마음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시다.

2) 이미 전투에서 이겼음에도 이스라엘 연합군은 계속해서 도망하는 군사들을 치고 심지어 베냐민 성읍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온 성읍을 다 불살랐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36-48절)

연합군은 3차 전투에서 베냐민의 군사를 죽인 것으로 모자라 베냐민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칼로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성읍에 불을 질렀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군사들도 다 죽고 베냐민 성읍의 사람들도 진멸한 상황에 광야로 도망친 베냐민 사람 600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전투에서 이긴 걸로 모자라 동족을 무참히 진멸한 이스라엘 연합군의 승리는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이 전쟁은 승자 없는 전쟁입니다. 한 지파가 멸절하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연합군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시작한 전쟁이었지만 형제를 그토록 비참하게 짓밟은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도록 기도합시다.

▶ 함께 나눔 (한 주간의 일들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